

YTN

INSIDE

09

vol.112

2014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www.ytn.co.kr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침묵 탄소산업도시, 전주

탄소산업전주
일자리 창출

Content 09 vol 112. 2014

IN

● In Newsquare

- 04 강성웅 | YTN, 독일 '레드닷 어워드' 수상, 세계도 인정한 YTN 디자인
- 06 최영주 | 위기의 CNN "TV 뉴스가 가라앉고 있다"

● Exclusive Now

- 08 김선희 | 기자들도 빠져들게 한 교황의 매력
- 10 서봉국 | 평행선 그리는 중·일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 일구는 사람들 _ Make Your YTN

- 12 박형일 | 통합보도정보시스템 '이지스 (YSYS)'

● 핫 코너 _ 이 방송,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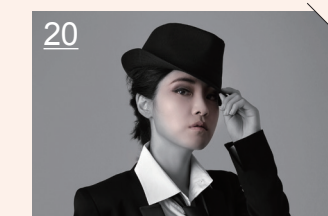
- 14 이지영 | 이야기가 있는 음악여행 '이지영의 뮤직톡톡'

● 미디어 클리닉 _ 이런 소리, 저런 사진

- 16 홍윤기 | NEWSQUARE 시대의 YTN 뉴스 차별화 전략



SIDE



●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 18 홍경한 | 기억폴이, 캔버스에 피어난 삶의 단면들

● 앵커의 변신

- 20 김시호 | 뉴스에 비타민 같은 활력을~ 미소 천사 윤재희 앵커

● YTN을 떠나며

- 22 전병모 | 아이디어가 '해외방송'과 'FM'을 낳았다

● 기자萬象

- 24 김종술 | 캐나다 산행기 / 비우고 내려놓으며...

● YTN 달인들

- 26 김시호 | '탱크'에 폭 빠진 감성 마초!! _ 김진호

● I Love YTN

- 28 조은지 |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날개를 달아준 YTN science

● 촬영의 전당, 뉴스퀘어

- 29 SBS |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 MBC | 예능 '무한도전' 팝콘필름 | 영화 '오늘의 연애'

● 상암도처有맛집

- 30 이은비 | 달콤스시_일식 / 일출 오향죽발_중식 / 저팔계_한식

● 컬처 스케치

- 31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YTN·볼빅 여자 오픈 / 계시판



표지

신철작

YTN INSIDE 9월호의 표지 작품인 신철의 <기억폴이>에는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직한 유년 시절의 사람과 이별, 고독과 그리움 등이 살포시 묻어나고 향기로운 감성이 화면에 부유한다. 남녀가 하나의 화면에 수줍게 등장하는 이 그림에서 남자는 이제 막 사랑고백이라도 하려는 낭 꽃다발을 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여자는 무언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서 있다. 우리가 이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다양하고 변잡한 인간사를 속아 실시간으로 보도해온 YTN만의 특징을 '치유의 결'로 변환시킨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으며, 상암동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을 청춘남녀의 뜨거운 사랑으로 대리하는 YTN의 언론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 • 사정자팀
121-904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 뉴스퀘어
TEL 02.398.8000 | 제보 02.398.8585
디자인 • 인쇄제작 |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YTN, 독일

‘레드닷 어워드’ 수상

세계도 인정한 YTN 디자인

강성웅 팀장 | 신사옥TF팀

reddot award 2014
winner

“행운이었죠.” YTN이 ‘레드닷 어워드’를 어떻게 받게 됐을까. ‘행운’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 ‘레드닷’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 출품작들 가운데 분야별로 최고만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YTN이 상을 받은 부문은 ‘레드닷 어워드’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Communication Design)이다. YTN은 이 가운데 ‘Corporate Identity (CI)’라는 하위 범주(sub category)에 출품을 해서 뽑힌 것이다. CI라고 해서 단지 회사 로고(Logo)를 예쁘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가 잘 표현돼 있는지, 또 실제로 적용은 충실히 했는지 중요하다.

수상의 출발점은 사옥 이전에 앞서 CI를 바꾸겠다고 한 회사의 결정이다. 상암동시대에도 예전 CI를 그냥 쓰기로 했다면 이런 상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새 CI는 YTN 미디어전략실이 외부 디자인 전문업체 ‘디자인파크’(DesignPark)에 의뢰해 만든 것이다. 동그라미 2개와 YTN을 Blue, Black & White의 3색으로 나타낸 새 CI는 ‘만남과 소통을 통한 가치의 발견’을 의미한다고 한다. 신사옥TF팀의 임무는 이것을 신사옥 YTN NEWSQUARE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우리 팀은 먼저 새 CI를 제작한 외주업체 ‘디자인파크’와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디자인에서는 하나의 개념(Concept)을 세우고 이것을 일관되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중에 비전문가에게 휘둘리면 심중팔구 한심한 결과로 끝이 난다. YTN의 디자인 컨셉은 CI에서 시작된다. CI가 시금석인 셈이다. 나아가 신사옥에 표현될 모든 형태와 색상의 ‘시원적 재료(始源的 材料)’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신사옥의 건설사는 물론 시공 및 납품 업체들에게까지 확고히 전달했다. 인테리어 업체, 내부벽 시공 업체, 간판 및 사인물 시공업체, 가구업체, 스튜디오공사업체 등등. 그리고 각 업체의 설계사 및 디자이너들과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회의에는 YTN의 CI를 만든 ‘디자인파크’의 디자이너 정진서 팀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각사의 디자인이 제각각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신사옥TF팀에서는 그래픽팀 출신의 서정호 씨가 YTN의 입장을 디테일하게 반영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각종 픽토그램, 출입문, 내부 벽면 그리고 내외부 간판은 물론 18층 옥상의 대형 로고에까지 YTN CI가 빈틈없이 적용됐다. 스튜디오는 TV화면에 노출되는 공간이므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방송화면에서 CI의 요소들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스튜디오 내부에 CI의 표현

이 매우 절제돼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새 보도정보시스템(YSYS, 이지스)도 예외가 아니다. 이지스의 PC 버전과 스마트폰 버전의 모든 화면 디자인에 새 CI가 적용됐다.

어려움도 있었다. 실력 있는 시공업체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힘들었다. CI의 기준에 적합한 도로나 자재를 찾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이것을 풀고 나면 납기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뒤따라 나왔다.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도 경험이 쌓이면서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었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시공 업체의 디자인 역량이 현저히 낮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였다. 이런 회사는 일반 공사 담당자가 디자인까지 맡고 있었는데 거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신사옥TF팀의 서정호 아트 디렉터(Art Director)는 이런 회사들이 빚어내는 황당하고 답답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줬다. 공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손수 디자인에 나서기도 했다.

YTN 사옥 내부의 각종 출입문이나 유리면에 붙여진 CI적 요소들은 모두 그의 열정이 묻어나는 ‘작품’들이다. 참여 업체들의 설계사나 디자이너와의 협업도 대체로 원만했다. 우리는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나아가 비전문가들의 무리한 간섭은 우리가 나서서 막아주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일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YTN과 ‘디자인파크’는 내친김에 세계적인 디자인상에 도전하자는 데 의기투합이 됐다. 도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생각해 보면 작은 일이라도 어느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는 일은 많지 않다.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받게 된 것은 더욱 그렇다. YTN과 ‘디자인파크’는 물론 건설사, 하청업체, 납품업체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협업을 한 결과다. 이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행운’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신사옥 입주 초기에 불편을 겪은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일부는 과거보다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 대부분 ‘애사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레드닷 어워드’는 이런 분들의 인내심에도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옥의 이전이 단지 공간의 이동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의미가 있다. YTN은 상암동 DMC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적어도 디자인 면에서는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레드닷 어워드’의 수상이 YTN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의 위안과 자부심이 되었으면 한다.

서정호

강성웅

정진서



위기의 CNN “TV 뉴스가 가라앉고 있다”

최영주 앵커 | 보도국 앵커팀

CNN 저널리즘 펠로우십 연수에 오르기 전, 세계 최초의 24시간 보도채널 CNN에 대한 환상보다는 위기에 처한 현실이 궁금했다. 폭스 뉴스(Fox News)와 MSNBC에 밀려 시청률 만년 3등이라는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CNN을 따라다닌 지도 이미 오래, 24시간 뉴스 출범의 역사에서 YTN보다 15년 정도 앞선 CNN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런 난국을 해결할 돌파구로 대체 어떤 카드를 쓰고 있을까.

“신문에서 TV로, TV에서 인터넷·모바일로...” 이번 연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뉴스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CNN의 현실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었다. CNN은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린 TV 시청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폭스와 같은 경쟁사보다 ‘모바일’과 ‘인터넷’ 등 플랫폼의 변화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폭스 뉴스가 여전히 시청률에서 절대적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객관적 사실과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CNN의 폭스 채널에 대한 인식은 시청자층이 아예 다르다는 것이다. 폭스 채널을 선호하는 보수층의 시청자들은 진보 성향의 MSNBC나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CNN 시청자들과는 분명히 구분되기에 표면적으로는 폭스와의 시청률 경쟁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뉴스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각종 디지털 매체들이 등장하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들이 등장하면서 광고주가 선호하는 뉴스 소비계층인 20~30대는 이미 뉴스를 TV를 통해 접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심지어 브레이킹 뉴스가 터질 때에도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TV를 켜기보다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CNN은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 CNN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CNNI 부사장 토니 매독스에게 물었다. 그의 답변은 뉴스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CNN의 현실 인식과 대응을 잘 말해주고 있다.

“시간을 들여 퀄리티 높은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다. 스토리가 잘 정돈돼야 하고, 풍부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전달하는 기자의 능력도 중요하다. (very well organized, enormous resource, great correspondent) 콘텐츠를 잘 만들면 시청자들은 금방 안다. 다만, TV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에 어떻게 접근하기 쉽게 할 것인가

가 관건이다.”

—Tony Maddox, Executive Vice President & Managing Director, CNNI

CNN이 위기 타개의 카드로 꺼내는 것은 바로 CNN.com과 모바일에 대한 투자다. CNN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터넷 연계 사업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보고 투자해 왔다. 세계적인 뉴스 미디어 CNN에게 웹 사이트는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CNN.com은 15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자체 뉴스룸을 가질 만큼 이미 큰 조직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 융합이 이뤄지는 진지로 이용자들의 주목을 사기 위해 거듭나고 있다.

“YTN은 과연 플랫폼의 변화에 준비돼 있는가?” 연수 도중 만난 CNN.com 관계자가 한국에서 온 펠로우가 누구냐며 나를 찾는다. 그리고 내게 묻는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는 이 같은 뉴스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고 말이다. 빠르면 2~3년 내에 닥칠 TV미디어의 위기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도 묻는다. 인터넷 보급율은 세계 최강이니, 그만큼 뉴스 플랫폼의 변화에도 대응이 빨랐을 것이라는 짐작인 것 같다. 참, 뭐라고 답해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한 순간이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일터에서는 죽어라 웹만 쳐다보고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걸으면서도 모바일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시청 행태의 변화에 따른 TV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사실상 깊이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하루 종일 사건 현장을 취재해 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스트레이트성 리포트는 저녁 무렵이 다 된 이브닝 뉴스에서야 방송이 된다. 하지만 그 시각, 이미 발생 리포트는 뉴스 소비자들이 하루 종일 웹과 모바일을 통해 접했던 전혀 새롭지 않은 뉴스다. CNN의 고민도 우리와 같다.

결국 현 시점에서 타 방송사와의 시청률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가깝게 다가가 있는 뉴스 플랫폼의 변화다. CNN은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플랫폼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는 돼 있는지... 매일 저녁 뒷북성 리포트 제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시점이다. 아니 생각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플랫폼의 변화에 따른 CNN의 위기 의식은 결코 남일 만은 아닌 듯하다.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

기자들도 빠져들게 한 교황의 매력

김선희 기자 | 문화과학부

2014년 8월 14일 오전 10시 35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행기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스튜디오에 앉아 생방송에 출연하던 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과거 뉴스를 진행할 때도, 취재 현장에 나가 생중계를 할 때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떨지 않는 나였지만 교황이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분명 달랐던 것이다.

나의 교황 따라잡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비록 교황과 함께 현장에 있진 못했지만 카메라를 통해 전해지는 교황의 모든 행보를 나는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생생하게,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4박 5일간 나는 교황 덕분에 웃고 또 울었다. 자신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청중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작다며 콘서트장의 가수처럼 두 팔을 흔들며 더 크게 하라고 요구할 때는 웃음이 터졌다. 또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두 손을 꼭 잡아줬을 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 평생 병상에 누워 지낸 장애인을 껴안고 입 맞출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온 힘을 다해 자신을 환영하는 울동을 보여준 장애인 아이들에게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를 만들어 보일 때는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솔직히 교황 방한을 앞두고 나는 종교 담당 기자로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생방송 출연을 맡아 스튜디오에만 있게 된 현실에 불만이 가득했다. 게다가 취재 등록을 위한 프레스카드 발급부터 취재 일정과 방송 계획, 출연자 섭외와 원고 작성 등 교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이 로마로 돌아간 지금, 나는 확신한다. “기자이자 가톨릭 신자로 교황과 함께 한 시간이 꿈같은 나날이었고 나를 일깨워준 은총의 시간이었다.”라고… 또 한 가지! YTN 창사 이래 문화부가 치른 가장 큰 행사인 교황 방한은 “함께 한 사람들의 환상적인 호흡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됐다”라고….

특히 방한 하루 전 퇴근도 미루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늦은 저녁으로 먹은 김밥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도 성스런 교황 기사를 쓰기 위해 투혼을 불사른 부장 이하 문화부원과 황금연휴를 기꺼이 반납하고 문화부원 이상으로 교황 소식 전하기에 열과 성을 다해준 타부서 지원자들에게, 그리고 시복식 등도 포기하고 방한 내내 YTN에 출연해 주신 고준석 신부님께 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진정한 의미의 교황 취재기를 위해 멀리서나마 교황을 취재를 했던 기자들의 소감을 싣고자 한다. 기자들도 빠져들게 했던 교황의 매력이 다시금 떠오른다.

나연수 : 취재하고 기사 쓰고 방송하는 내내 부끄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다. 언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모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던, 그래서 보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한다.

최원석 : 시복식 당일 이국에서 온 목자를 향해 흔들던 수많은 손이, 꼭 우리의 결핍과 아픔을 어루만져 달라는 몸짓이 아니었나 싶어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 눈과 귀가 어느 쪽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만든 미소에,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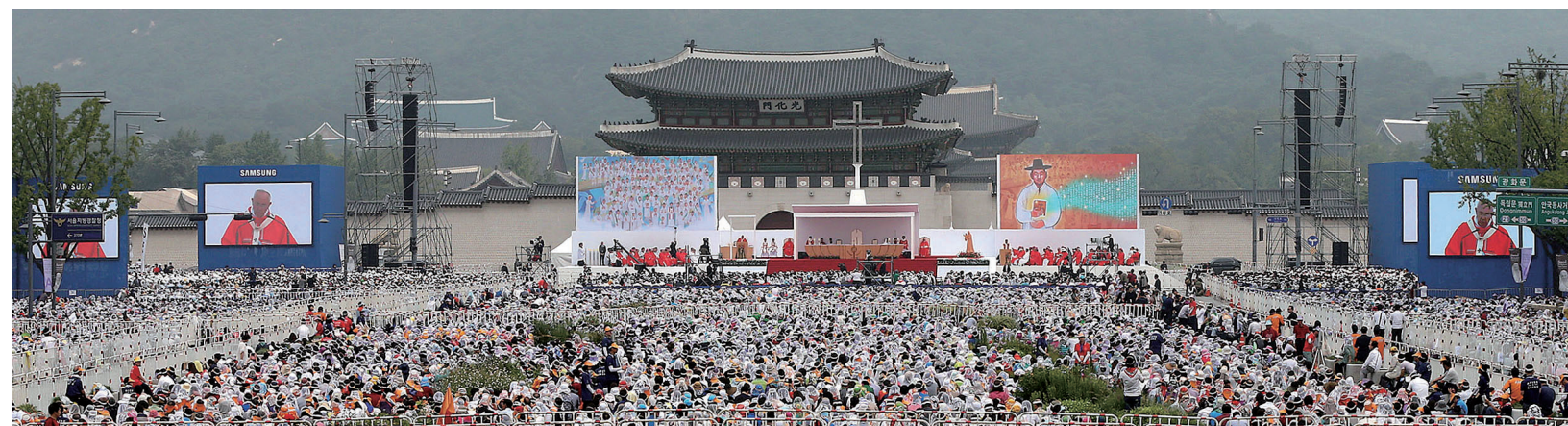
한연희 : 성당 밖에서 대형 화면으로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를 지켜봤다. 미사가 진행되는 도중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종교도 없는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복받치는 것은 아마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지만, 뭔가 응시받고 치유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한동우 : 무교인 내게도 교황은 짙은 울림이었다. 한 달째 이어진 단식으로 초체해진 유민이 아버지의 손을 말없이 잡아줄 때, 그는 종교 지도자를 넘어선 성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명확했고, 경계가 없었다.

우철희 : 교황이 카퍼레이드 도중 예고 없이 내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에게 다가갔을 때 그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두 손을 꼭 잡아줄 때는 취재기자인 나조차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감동에 알각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 참아내야만 했을 정도였다.

이형원 : 명동성당 앞에서 비가 오는 것도 해가 잠깐 비쳤던 것도 모두 교황이 오는 걸 반기는 거라며 환하게 웃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신자는 아니지만 교황이 와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나도 감사한 맘이 들었다.

임성호 :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자기 손을 잡은 교황의 손에 가만히 이마를 댔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늘 곳곳해야 하는 게 의무였던 할머니들이 고요한 아기처럼 느껴졌고 평안해서 눈물겨웠다.



평행선 그리는 중·일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서봉국 특파원 | 북경지국

경제력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G2로 올라선 중국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바로 세계최강국 미국을 따라잡고 15세기 이전 '중화', 세계의 중심이었던 과거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거창하게 '중국몽'이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한때 주변국 모두가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옛날을 재연하고 싶은 것이죠.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미국에도 할 말은 하고, 더구나 주변국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와 북한도 중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국 가운데 단 하나 예외가 있죠. 일본입니다. 경제력도 만만찮고, 무엇보다 악화되는 중일관계 탓에 당장 전쟁이라도 불을라치면 군사력 측면에서 결코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여전히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의 경제적 쇠락으로 지역의 군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눈엣가시 같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부분,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침략 역사 부정과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동남아 주변국들과 연합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셈이죠.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공조를 꺾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중국명 다오위다오 국유화 이후 일촉즉발까지 갔던 중·일 관계는 2년이 지난 지금 2라운드, 역사 전쟁으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올 초부터 대일 역사 공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자들을 포함해 베이징과 상하이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청해 선양과 다롄 등 동북과 만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과거 일제의 침략 흔적들을 다시 들추어냈습니다. 그 뿐인가요? 1차 만주 지역 외신 투어에서 재미를 본 중국 외교부는 2탄으로 난징대학살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남경으로 다시 외국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만주사변 박물관, 난징대학살 박물관은 그렇다치더라도 지린성 기록보관소 등지에서 케케묵은 과거 일본군의 자료들을 발굴·복원해 '침략자' 일본의 약점을 찔러댔습니다. 과거 중국 외교부 출장이 일정 부분 외신기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는 성격이 없지 않았다면 올해의 경우는 하루에도 일본 침략 역사 관련 유적지를 3~4군데 돌아야 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이 좀 넓습니까? ㅏㅏ

최근까지 중앙기록보관소에서 일제 전범 고백 시리즈를 하루에 한 편씩 공개했던 중국은 8월 중순부터는 이른바 항일전쟁 승리 기록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 패망 후 중국에서 사로잡힌 일본군 전범들을 하나도 사형시키지 않고 잘 먹이고 잘 대우해준 덕분(?)에 일본군 전범들의 고백은 “포로를 충검술 교재로 삼았다” “하루에 중국 양민 수 백 명을 갖가지 방법으로 학살했다” 등 솔직하기 그지없는 내용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 십년 뒤 일본에 역사 공세를 펼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선견지명입니다.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APEC회의가 열립니다. 그 동안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다섯 번이나 회동한 것과 달리 일본 아베 총리와는 아직 양자회담조차 없었습니다. 주최측 입장에서 만나 주기는 해야 할텐데..., 최근 8·15때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한 아베의 행태는 참 알미웠죠. 중국 쪽에 “야스쿠니 참배 앞으로 안 한다”라고 한 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통합보도정보시스템 ‘이지스’

박형일 부장 | 시사국TF팀

YSYS

소프트웨어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중

○ 2014년 4월, YTN의 모든 부서와 자회사가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했다. 이제 남은 일은 사옥 이전과 같이 계획되었던, 오래된 보도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오픈하는 일이 남아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Newsys와 iNews를 새로운 기술로 융합·통합하는 통합보도정보 시스템으로써,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아테나의 무적방패를 의미하는 ‘이지스(YSYS)’라고 이름을 지었다.

○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개발되는 통합보도정보시스템은 ‘이지스-S’와 ‘이지스-V’로 재개발되어 통합되며, 보도 정보에서 기사를 쓰면서 영상을 검색해서 필요한 녹취 끊기 등으로 영상 편집에 편리함을 줄 수 있다.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런다운에서는 준비된 영상과 그래픽을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제작된 그래픽을 검색하고 연합뉴스포트를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한 자막의 색상도 사용자가 지정·적용이 가능하며, 방송 시간대별로 복잡한 자막 포맷을 효과적으로 다시 적용하는 기술도 포함된다.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기사 작성뿐만 아니라 SNS로 Publishing을 포함하는 등 많은 기술들을 동원하고 있다. 모바일에서 작성하는 취재 계획 등은 많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1년 만에 새롭게 개발해서 구축되는 시스템이어서 변화된 기술과 숨겨진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픈이 늦어지고 있다. 지금 정보시스템팀, IT기술팀, 개발자, 일부 사용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테스트에 테스트를 거듭하고 있으며, 점점이 완료되면 곧 사용자들에게 그 첫 화면을 보여주게 될 듯하다.

○ 사람들은 익숙해진 편리성을 잃어버리기 싫어한다. 새로운 것은 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6·25시대의 낡은 전차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 시대의 전차도 탈릴 수 있었고 포를 쏠 수 있지만, 첨단 21세기에 그 낡은 전차를 계속 운전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YTN을 사랑하는 사용자 의지에 달려있다. 처음에 점검해야 될 것이 많고, 새로운 조작법을 다시 배우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지스는 과거에 익숙해진 조작법을 충분히 수용하게 했고, 정밀한 자동 조작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만큼, 익숙해지면 더 많은 업무 효율과 다양한 새로운 업무에 응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믿는다. 나름 편리성은 취하고, 불편한 기능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술은 없는 것 같아 고민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이지스(YSYS)’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랄 뿐이다.

이야기가 있는 음악여행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이지영의
스토리텔링 콘서트! 뮤직톡톡

이지영의 뮤직톡톡

이지영 | 피아니스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분주한 녹화장,
큼지막한 '이지영의 뮤직톡톡' 타이틀을 눈으로 확인하니
직접 체감하지 못했던 그 무게가 이제야 비로소 실감난다.



나와 세상을 연결하던 음악, 대중과 음악을 연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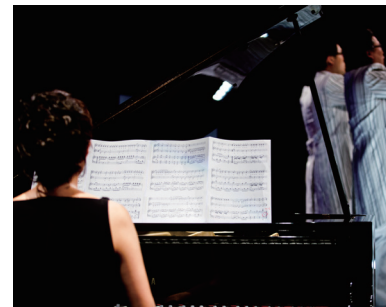
음악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나에게 음악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의 창구였고,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였다. 이런 음악과 함께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피아노 앞에만 앉아있던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내 이름 석자를 건 '이지영의 뮤직톡톡'을 통해 내가 느낀 음악의 따뜻한 선율을 대중들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의 작은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첫 녹화, 소리 없는 떨림을 이기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섰던 그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설렘 반 두려움 반. 이 감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마이크를 꼭 쥐었던 내 모습. 수 많은 스태프들과 조명, 카메라가 나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동안 오로지 머릿속을 맴돈 생각은 하나였다.

“해내야 한다! 이지영 넌 잘 해낼 거야!”

뮤직톡톡 첫 회 녹화는 그렇게 소리 없는 떨림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여야 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이 음악이었다면, 첫 녹화는 나 스스로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긴장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음악과 함께 했던 지난 30년. 하지만 피아노 연주에만 익숙했던 탓에 녹화 내내 많은 것들이 어색했다. 그 와중에도 내 마음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 바로 이지영의 뮤직톡톡을 시작



하게 된 이유였다. “음악을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대중들의 선입견을 깨자. 그래서 대중들이 다양한 음악 장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이라는 것이 강요가 아닌 즐거움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가 있는 음악여행, 이지영과 함께 떠나보실래요?

1석3조라는 표현이 가장 좋을까? 현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생생한 라이브로 듣고, 또 그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과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지영의 뮤직톡톡>은 대중과 음악의 소통을 넘어서, 이지영과 연주자와 대중들, 그리고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색다른 음악회로 탄생되었다. 한 회 한 회 녹화가 진행될 때마다 놀랍게도 성숙되어 가는 나를 느낀다.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뮤직톡톡은 인생 절반 이상을 음악과 함께 한 나 이지영에게도 너무나 멋진 음악적 교류의 시간이 되주며 폭넓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음악장르 불문! 음악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함께 즐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에 나조차 몰랐던 무한한 선율의 세계와 음악인들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세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대중들에게도 그들의 무한한 신세계를 선사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소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NEWSQUARE 시대의 YTN 뉴스 차별화 전략

홍문기 교수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YTN은 24시간 전일제 뉴스 편성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뉴스 보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종편채널의 보도 프로그램 증가와 경쟁 보도채널의 현장감 있는 뉴스 편성으로 YTN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종일 방송 시대에 24시간 전일제 뉴스 보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취재기자와 앵커가 전문가와 함께 뉴스를 해설하던 YTN만의 뉴스 보도 방식은 이제 모든 뉴스 프로그램에 도입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 동안 뉴스 보도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YTN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현재 YTN 뉴스를 진행하는 뉴스 앵커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뉴스 장르/주제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 YTN 앵커들은 대부분 기자 출신이다. 따라서 이들은 나름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취재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정치, 경제, 사회, 증권, 연예, 스포츠 등으로 전문화/세분화시키고 시청자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전문 뉴스를 편성해 전문 분야 앵커들이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 브랜드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앵커 개인의 외모, 화법, 목소리, 톤, 제스처는 물론이고, 뉴스 문장 구성, 자막, CG 등도 뉴스 브랜드화 전략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YTN의 뉴스는 전문성 강화와 시청률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시간대별로 나뉘어진 종합 뉴스 형식은 줄이고, 앵커 중심의 전문 뉴스를 브랜드화 시킨다면 뉴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뉴스보도 환경이 YTN의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YTN은 현재 모든 뉴스 자막을 같은 배경(파란색)에 같은 글자색(흰색)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보다는 뉴스의 중요도/시급성/취발성 등에 따라 주목도와 명시도를 고려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시청자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로 다매체·다채널 환경에서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복잡하고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스 스튜디오의 구성과 앵커에 대한 카메라 앵글을 뉴스 프로그램 특성 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바스트 샷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스탠딩, 무빙 등 뉴스 구성 방식에 따라 역동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카메라 워킹을 고려해야 한다. 스튜디오 변화와 관련해 레이저나 LED 배경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뉴스 전달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서는 뉴스 주제·장르에 따라 뉴스의 연성화·경성화 결정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날씨·스포츠·연예 관련 뉴스는 연성화하고, 시사·정치 프로그램은 경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방식 보다는 뉴스에 대한 시청자 관심의 성격과 시대적 가치 등을 고려해 뉴스의 연성보도와 경성보도 중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뉴스 관련 소품이나 앵커·기자의 의상, 뉴스 참여 패널의 성격·이미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얼마 전 YTN은 새 건물로 입주했다. “YTN NEWS SQUARE” 불리는 이 건물은 YTN의 모습을 바꿔 놓았다. 총 18층짜리 이 건물에는 생방송 투어 코스, 체험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등이 마련됐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와 더불어 YTN의 뉴스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YTN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시청자의 다양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뉴스 전달력을 갖추기 바란다.

이는 혼란스러운 언론 환경에서 여론 형성의 중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의 바램임을 NEWSQUARE 시대의 YTN은 깨달아야 한다.


**혼란스러운 언론 환경에서
 여론 형성의 중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의 바램임을
 NEWSQUARE 시대의
 YTN은 깨달아야 한다.**

기억풀이, 캔버스에 피어난 삶의 단면들

홍경한 미술평론가 | 경향아티클 편집장

신 철
 • 1953년 출생
 •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 현재: 강원대학교, 원광대학교, 대전대학교 대학원 출강
 • 서울 광주 부산 휴스턴 등 국내외 총 28회 개인전 및 650여회의 단체전
 • 주요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외교통상부,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의료원, 강원대학병원 암센터,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 주 불가리아 한국대사관, 서울고등검찰청, 수원지방법검찰청 여주지청, 산업은행 외



1

거의 텅 빈 화면에 무표정한 남자가 서 있거나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화폭 너머를 흘깃거린다. 남녀 간에 느낄 수 있는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묘한 심리상태를 작가 특유의 동화적인 시선으로 풀어놓는가 싶더니 어느 한편에는 기억의 편린을 군더더기 없는 이미지로 치환한 작품들이 들어서 있다. 여기에 도시민들에게 흔한 어딘가 외롭고 쓸쓸한 여운들, 비교적 무덤덤하나 다양한 감정들을 쏟아내는 인물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은 곧 나의 모습, 우리의 초상으로 공유된다.

이처럼 작가 신철의 작품은 따뜻하면서도 외롭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봤을직한 유년 시절의 사랑과 이별, 고독과 그리움 등이 살포시 묻어나고 향기로운 감성이 화면에 부유한다. 때론 소박함과 해학, 알 수 없는 정감 등이 물씬하지만 어느 땐 연민의 감정마저 배어있다. 그야말로 그의 지속된 주제인 〈기억풀이〉연작에는 인간 내면을 시처럼 담아낸 서정미와 형용할 수 없는 고독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감성이 녹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래 들어 더욱 도드라진다. 즉, 단조로우나 속 깊은 색과 내용을 담보한 작품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만들어내고 있는 형상은 예전보다 상당히 단순화되었고 장황한 서술은 확연히 줄었다. 자연과 사람을 그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시공을 초월해 인간의 향수와 기억을 더듬으며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호들만이 주변의 여백을 머금은 채 화면에 안착되고 있어 회화적 원숙미가 더해졌음을 증명한다. 이는 그토록 떨어내려 했던 번잡한 상징의 홍수에서 완전히 벗어나 많은 것을 떨어내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 다른 관점에서 그의 작업은 추상과 구상의 접점에서 이뤄짐을 인지하게 된다. 이 부분은 신철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이기도한데, 예전의 작품들이 비교적 장식적인 장치 아래 구체적인 형상성을 획득한 후 개별적인 기호들이 화자의 심상을 옮기는 전이적 도구로서 존재했다면, 현재의 그림들은 분명 그 어떠한 것들이 시초의 모습을 드러내는 선에서 멈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86년 이후 수많은 작품전을 치르는 동안 여러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창조라는 본연의 발아점을 찾기 위해 끝없이 연구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철의 근작들은 설명이 배제되고 간략화 되었음에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언의 아우라(aura)가 그 이상의 내레이션을 함유하고 있다. 굳이 이것저것을 논하지 않아도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



2

1. 기억풀이 _ 안부, 45.5×53.0cm, Acrylic on canvas, 2014
2. 기억풀이 _ 오실줄알았어요, 91.0×116.7cm, Acrylic on canvas, 2013
3. 기억풀이 _ 남매 가오리다 2, 80.3×130.3cm, Acrylic on canvas, 2014
4. 기억풀이 _ 님마중, 80.3×130.3cm, Acrylic on canvas, 2013



3



4

는 셈이다. 물론 이는 신철의 회화가 새로운 생성지평을 열어가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기반으로 한 일상성을 모티프로 삶의 근원에 대한 자의적 물음의 도정에 있음을 읽게 하는 단초가 된다. 특이한 것은 그의 화력이 세월에 덧칠될수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흔적들은 더욱 농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세태에 따른 자아의 고착, 물질, 명예, 이념이 강한 신념으로 구축되면서 동일한 관념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반면, 그의 그림들에선 오히려 순수한 감성이 배가되는 여운이 작지 않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모더니즘 회화의 미학, 즉 비움으로서 채운다는 개념이 가득 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YTN 표지 작품인 또 하나의 〈기억풀이〉도 동일한 등선에 놓인다. 남매가 하나의 화면에 수줍게 등장하는 이 그림에서 남자는 이제 막 사랑고백이라도 하려는 낭 꽃다발을 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여자는 무언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서 있다. 여기까지라면 심심할 것이거늘 작가는 두 남녀를 감싸 안는 형형색색의 대지와 파란 하늘을 통해 청춘의 푸름과 열정을 기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일차적으로 삶의 단상을 기의로 한 기표이며 동시에 신철 작업의 핵심인 기억의 방사이자 현재의 반추라는 점을 인지케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양하고 번잡한 인간사를 속아 실시간으로 보도해온 YTN만의 특징을 ‘치유의 결’로 변환시킨 지혜로움이 돋보인다. 나아가 상암동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을 청춘남녀의 뜨거운 사랑으로 대리하는 장치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누군가의 아픔까지 안아주는 그림이 YTN의 언론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뉴스에 비타민 같은 활력을~ 미소 천사 윤재희 앵커



밝고 통통 튀는 윤재희 앵커의 웃음이 촬영장을 가득 채웠다.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백만 불짜리 비타민 미소다. 뉴스 속에서는 차가운 이미지가 강했던 윤재희 앵커.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니 그녀 말처럼 '구수한 청국장녀'가 따로 없다. 요가와 필라테스로 다져진 것 같은 날씬한 몸매는 뽀뽀하기 그지없고, 딱 부러지게 뉴스를 전하던 것과는 반대로 사진 찍는 것을 참 어색해한다.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결혼사진 이후 정식으로 처음 사진을 찍어본 단다. 그녀가 2008년 웨딩마치를 올렸으니 정~말 오래됐다. 그리고 이 변신이 그녀에게 엄청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촬영 콘셉트는 윤재희 앵커가 직접 정했다. 바로 매니시 룩! 장난기 많은 톰보이를 연상했는데, 수트를 바꿔 입고 나타난 윤재희 앵커는 그녀의 뉴스처럼 참 다부지다. 엉성한 듯 참 매력적인 이 여자, 무사히 앵커의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사진을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정리: 김시호 | 방송작가

협찬

장소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02-3142-0010/0070
촬영 / 전경현 대표

Q. 이번 변신 콘셉트를 매니시 룩으로 정한 이유?

김선영 앵커의 사보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쁘게 보이는 거엔 자신이 없어요. 성격이 그다지 여성스럽지도 않고, '카메라 마사지(?)'를 잘 받는 얼굴형도 아니어서 아예 반대로 가보자 생각했죠. 왜 '아줌마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이다'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중성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사진 찍는 것을 어색해하는데 어떻게 앵커라는 직업을 택했나?

대학 다닐 땐 PD를 목표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4학년 초에 우연히 '아나운싱' 수업을 들었고, 당시 현직 아나운서를 하고 있던 교수님이 "내가 볼 땐 PD쪽이 아니야, 아나운서 시험을 봐" 하시더군요. 그래서 5월에 '방송국 어떻게 생겼나 구경이나 해보자'하고 응시한 지상파 아나운서 공채에서 최종까지 간 거예요. 그 때 '어?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생각하고, 제가 가장 못하는 '면접 중 춤추고 노래 부르기(?)'가 없는 YTN에 입사하게 됐어요. ^^

Q. 앵커로서 콤플렉스가 있죠?

아~ 과거의 고뇌가 떠오르네요. 입사하고 1년 정도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지적 받은 게 '하이톤 목소리'였어요. 뉴스 앵커는 진중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때 겨우 23살인 제가 앵커석에 앉아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 하니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굵고 낮게 목소리 내는 연습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 목소리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의 색깔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활기찬 아침에 어울리는 목소리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곤 합니다. ~^^

Q.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제가 앵커를 10년 이상 하면서 이상한 '촉'이 생겼어요. '뭔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어김없이 뉴스 중 속보가 터지고 그게 특보가 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뉴스 들어가기 직전에 느낌이 '짜~' 하더라고요. 어김없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 모두가 살아있었던 시간부터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시간까지 뉴스를 했었죠. 평생 잊지 못할 뉴스이고, 매해 제 생일이되면 떠오를 가슴 아픈 뉴스인 것 같아요.

Q. 앵커이자 두 아이의 엄마, 두 가지 역할이 벅차지는 않나?

아침 생방 뉴스니까 평소 5시에 일어나서 6시엔 회사에 도착해요. 아침형 인간이라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는데, 아침 시간 엄마의 부재를 아이



들이 이해해 주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날은 너무 오래 못 봐서 그런지 첫째가 TV에 나오는 김태희를 가리키며 "엄마대!" 하더라고요. 그러니 둘째가 "우와~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예쁘다" 하던데요. 예전에는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요즘엔 아이들도 적응해서 '엄마가 회사 안가면 우리들 간식은 평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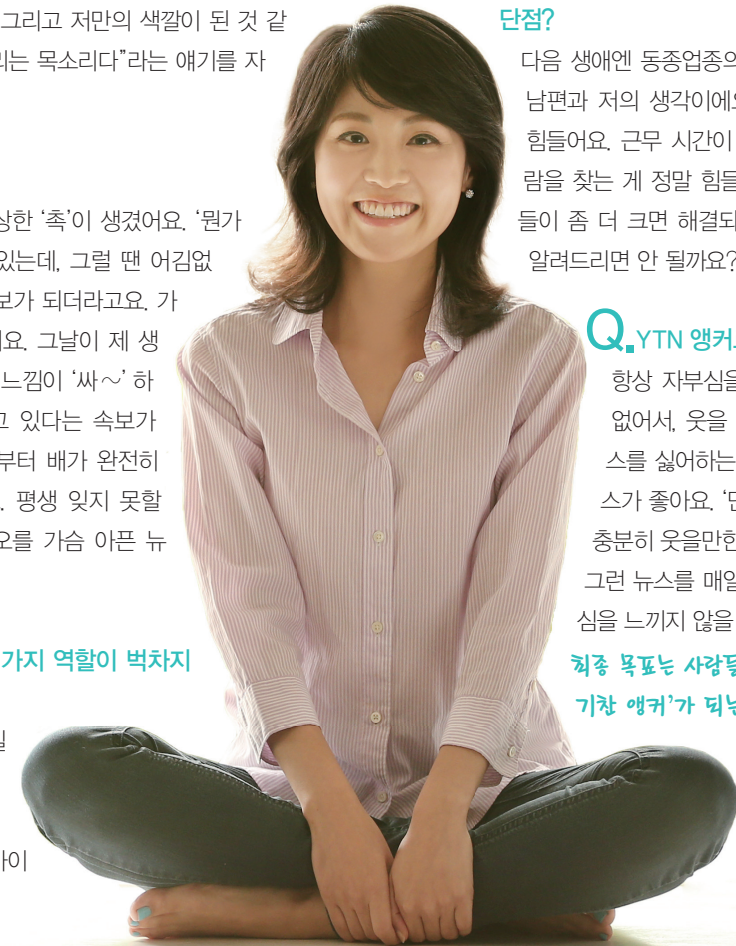
Q. 남편(SBS 김일중 아나운서)이 경쟁사 아나운서인데, 장단점?

다음 생애엔 동종업종의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자는 게 남편과 저의 생각이예요. 일단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아이 돌볼 사람을 찾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을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해결되겠죠. 장점은... 좀 더 살아보고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

Q. YTN 앵커로써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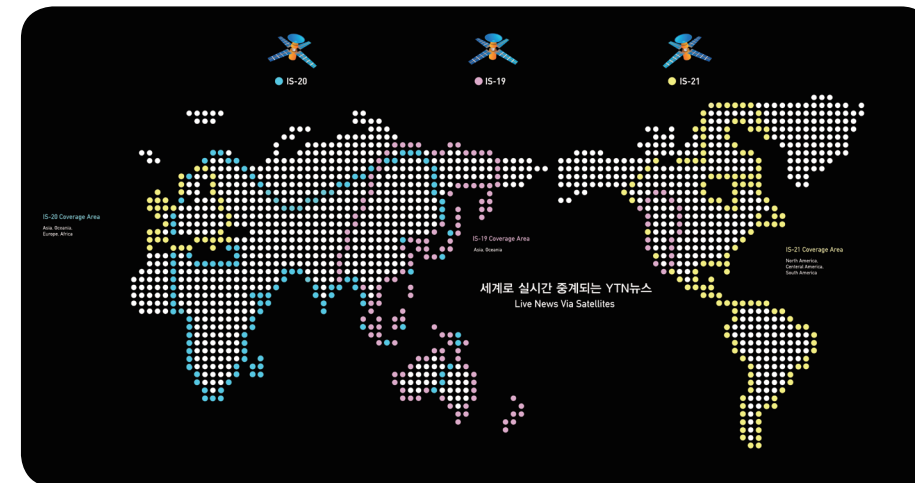
항상 자부심을 느껴요. 물론 '딱딱해서, 재미 없어서, 웃을 일이 없어서' 다양한 이유로 뉴스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뉴스가 좋아요. '단정해서, 살아있어서, 그 속에도 충분히 웃을만한 일들이 있어서'가 그 이유예요. 그런 뉴스를 매일 최전방에서 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순간이 있을까요?

최종 목표는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앵커', '밝고 활기찬 앵커'가 되는 거예요. 진중함이나 차분함도 좋지만 좀 실수를 하더라도 '딸.딱.거리는, 살아있는 진행'을 하는 앵커가 되고 싶어요!



아이디어가 ‘해외방송’과 ‘FM’을 날랐다

전병모 | YTN 라디오 기술팀 (2014. 8. 31 퇴사)



필자는 YTN 6개 매체 중 해외방송(글로벌뉴스센터)과 FM방송 등 2개 매체를 론칭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했다.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YTN 매체 경쟁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

첫째, ‘해외방송 국고지원’은 2003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2년 3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실시간 위성방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1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당시 권병현 이사장(재외동포재단 초대이사장)에게 보고했다. 권 이사장은 “우리 사업이 맞다... 함께 하자”고 했다. 이후 외교부 심사-기획재정부 예산심사-국회 예산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마침내 사업이 확정됐다. 필자는 YTN과 한국어 위성방송을 하고자 했던 정부의 뜻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본 사업이 가능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Live 한국어 위성방송을 국내 최초로 론칭한 결과 해외 교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태평양 사모아섬에 사는 동포와 케냐의 회사 주재원 등으로부터 한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준 “YTN에 감사하다”는 감동의 편지를 수도 없이 받아보기도 했다. 한마디로 꽤 거였고 감격이었다. 현재 동포 대상 해외방송은 없어서도 안 되고, 없앨 수도 없는 매체로 고착되었다. 필자는 2002년 중무식에서 본 건으로 YTN대상까지 받는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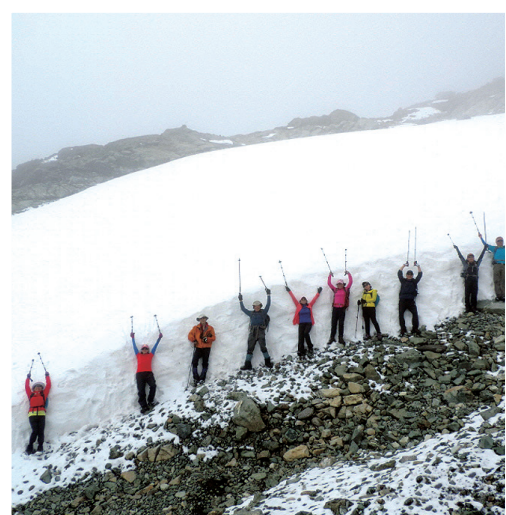
둘째, 2008년 4월 개국한 ‘FM’은 6년이 경과됐고 라디오 방송시장에 완벽하게 정착하고 있다. 과업 달성을 위해 10여 년간 당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2개의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들을 거쳤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절차와 2개 부처의 시소게임, 그리고 기존 지상파 사업자들의 방해 등 온갖 가시밭길을 헤쳐 나갔다. 가용주파수가 없다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3만 분의 1 특성을 가진 강력한 지향성 안테나를 개발해 기존 FM방송사 방송구역에 혼신을 주지 않는다”는 다짐이었다.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를 통해 수 십차례 설득했지만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제는 동네 마을버스나 택시에서도 익숙한 앵커와 기자 목소리, 그리고 로고송과 음악도 자주 듣게 된다. 이제는 꽤 익숙해져 가는 느낌이다.



아이디어는 경쟁력,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남이 생각하지 않은 창조성만 내재돼 있다면 그 가치는 곧 경쟁력으로 발전된다. 아이디어가 좋아도 혼자는 버겁다. 그래서 보도국과 정책적인 대외문제를 논의해 설득하고 해결해냈다. 이 자리를 빌려 굶은 일, 고락을 같이함에 고마움을 표하며, 기존 방송사들의 사업자 진입 방해를 잘 막아낸 TFT에도 감사드린다.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해외방송 20명, FM 40명 등 60여 명에 달해 가슴 뿌듯하다. 그러나 위의 결과들, 후반부 생의 대부분을 바쳐 혼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들이었기에 더욱 진한 자부심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외방송과 FM 등 2개 매체 모두, 정부가 사업자를 공모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필자를 비롯한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정부를 설득해 성공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짜릿함도 느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가을과 함께 은퇴한다.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이글을 마친다.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캐나다는 늘 나에게 새로운 존재로 다가온다. 2002년 1년간 연수를 한 곳이라서 그렇고 사랑스런 두 딸이 살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캐나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아내와 나는 무모하다시피한 도발을 했다.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려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캐나다 산행을 결행한 것이다.

첫 산행지는 밴쿠버에서 서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조 프리 마운틴. 이 산은 초입에서부터 광활한 호수를 자랑하고 있었고 트레일 곳곳에 폭포와 개울이 여름 더위를 식혀줬다. 특히 이 산은 중간과 정상에서도 만년설이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가 2개나 더 있어서 7시간 가까운 산행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루를 쉬고 두 번째로 도전을 한 곳은 밴쿠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프로스트 마운틴. 해발 2,408m에 산행 거리만도 22km나 되는 실로 엄청난 산이었다. 한 여름이었지만 산 중턱부터 녹지 않은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 7부 능선부터는 돌산이 앞을 가로 막았다. 경사 60~70도에 밟으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위험천만한 길들. 여기에서 앞서 가는 사람들이 잘못 밟아 굴러 떨어지는 큰 돌들은 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오른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은 마치 내가 에베레스트에 오른 것 같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도 멋이 있었다.

마지막 산은 사람의 접근을 거의 허용하지 않은 해발 2,800미터의 텐켈 마운틴. 이 산은 대형 지프가 아니면 주차장까지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산행 시간 때문에 최소 하루 이상은 머물러야 하는 곳기에 2박 3일 일정으로 도전을 했다. 별떼처럼 덤벼드는 모기들을 이겨내며 8시간 가까운 산행 끝에 도착한 해발 1,664m의 베이스 캠프. 이곳에도 돌레가 3km 가량 되는 대형 호수(텐켈 호수)가 있었고, 호수 주변은 마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는 것 같은 대형 야생화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행 몇 명과 함께 호수를 둘러봤는데 가는 곳 마다 절경 그 자체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그렇게 아름답던 꽃밭이 설국으로 변해 있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뀐 것이다.

여름휴가 동안 이렇게 캐나다 산을 하나하나 만나고 다녔다. 웅장하고 심지어는 무섭기까지도 한 그 대자연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순응하고 내려놓는 것 뿐이었다. 밴쿠버 공항을 떠나면서 캐나다 산들에게 다시 한 번 약속을 했다. 더욱 더 비우고 내려놓으며 살리라...라고,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이곳에 돌아오리라고...

캐나다 산행기

비우고 내려놓으려...

김종술 총괄부국장 | 사이언스TV 본부

‘탱크’에 푹 빠진 감성 마초!!

김진호 그래픽 디자이너 | 보도국 그래픽 팀

로봇, 탱크, 전투기! 모두 남성들을 설레게 만드는 단어들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이런 단어에 이끌려 문방구로 향했던 기억이 있지 않는가... 문방구에 가득 진열된 조립식 장난감 중 하나를 골라들고 집에 가는 길의 행복감이란~!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잊지 않고 취미생활로 만든 사람이 있다. 바로 보도국 그래픽팀의 김진호 씨(39).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불렸던 그 아련한 시절, 진호 씨의 옆집이 바로 조립식 장난감(프라모델)을 파는 가게였다. 그는 늘 그 집에 사는 형과 놀며 탱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2005년, YTN에 입사하고 2년 뒤 그는 다시 ‘탱크’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가 이렇게 탱크에 푹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보유한 조립식 탱크만도 100여 개, 조립을 기다리는 키트는 300개에 달한다. 가장 고가는 2m짜리 대포로 70만 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는 귀하신 몸이다. 푹 빠졌을 때는 하루 8시간씩 탱크 조립에 몰두했다는 진정한 조립식 탱크마니아, 김진호 씨. 조립식 장난감을 만지던 손으로 YTN 보도국에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래픽을 담당하고 있으니,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이 그의 재능인가보다. 실제로 그에게 이 독특한 취미는 일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프라모델은 단순 장난감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교한지 실물과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픽을 하다 보면 과거의 전투 장면을 재현해야 하는데 그럴 때 역사와 무기에 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그때 프라모델이라는 취미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죠.”

실제로 전문 ‘프라모델러’는 영화의 무기 고증을 도맡아 할 정도라고 한다. 이제 실루엣만 봐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장비인지 알겠다는 김진호 씨. 그의 섬세한 그래픽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다. 아날로그 장난감에 대한 향수로 시작된 취미가 삶에 활력을 주고, 일의 전문성까지 높이고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 앞으로는 탱크 뿐 아니라 비행기와 군함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 늘 철들지 않는 ‘키덜트’로 YTN에 활력을 주길 바란다!

정리: 김시호 | 방송작가

“실제 무게가 50톤 가까이 되는 쇠팅이가 굴러다니며 포를 쏘는 모습을 보면 탱크의 무시무시함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런 ‘강한’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갖게 될 때의 성취감은 상상이상이죠. 취미로 조립식 탱크를 만드는 분들 중 여성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이걸 철저히 남자의 취향이기도 하겠네요. 어린 시절의 향수도 한몫했겠죠.”



서포터즈 면접을 위해 긴장된 모습으로 대회의실로 들어섰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 대기실에서 긴장하며 면접을 준비하던 친구들을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반가움에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이 기뻐했습니다. 열정 넘치던 친구들은 두 달간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며 이제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게 된 팀은 「판도사 3.0」이었습니다. 「판도사 3.0」은 YTN science가 개편되면서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던 날이 첫 방송이 시작되던 날이라 「판도사3.0」에 특별한 애정이 갔습니다. 「판도사 3.0」은 생활과학상식을 대결구도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디어 회의부터 기획구성안까지 서포터즈들과 함께 촬영 준비를 하면서 TV를 통해 시청만했을 때는 몰랐던 방송의 뒷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이템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작가님과 밤낮없이 편집하시는 PD님을 보며 방송 제작의 힘든 모습도 많이 보았지만, 그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방송 제작의 매력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판도사 3.0」안의 짧은 공트에 출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많이 떠는 절 위해 PD님이 일부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상이 YTN science에 방송된다는 사실에 무척 긴장되었지만 PD님이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는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캠페인의 내레이션 더빙 기회도 얻었습니다. 내레이션을 더빙하면서 음악감독님과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조금씩 발전하는 내레이션을 들으며 제가 진짜 아나운서가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이렇듯 YTN science에서 서포터즈 활동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YTN science에서 보낸 두 달의 시간이 앞으로 제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무한한 가능성의 날개를 달아준 YTN science!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상암도처有맛집



구성 : 이은비 | 디지털뉴스팀
카툰 : 최재용 | 홍보·시청자팀



달콤스시 <맛도 달콤! 비주얼도 달콤! 가격도 달콤!>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점심을 먹고 싶다면? 부담스러운 일식집이 아닌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달콤스시로 고고씹~! 달콤스시는 단품보다는 세트 메뉴를 적극 추천! 그중에서도 하루 20인 한정 '런치세트'는 초밥과 우동을 단돈 8천 원! 하지만 조금 더 푸짐하고 다양한 구성을 원한다면? 추천하는 '친구세트'! 인당 1만 원 대 초반으로 초밥과 튀김, 우동, 마끼까지 호로록~!(모든 메뉴에 샐러드와 달걀 튀김은 덤!) 그리고 또 하나 달콤스시의 비밀병기! 고르곤졸라 피자! "초밥에 왜 피자냐고?" 우선 먹어보고 말을 하라! 여기가 초밥 가게였나 싶을 정도의 훌륭한 피자를 맛볼 수 있다! 피자는 따로 시키기보다는 3인 세트로 맛보는 게 합리적! 그리고 또 하나 팁! 오전 11시 40분 전에 가면 전 메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 것!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당 충전이 필요한 하루라면 가격도 양도 맛도 달콤한 달콤스시 어떨까?

- ▶ **영업시간** : 11:30 ~ 24:00 (주말 영업有, 배달有)
- ▶ **위치**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451
- ▶ **간단 위치** : DMC 9번출구에서 나와 첫번째 골목 오른편 3번 째 가게
- ▶ **문의** : 02-303-7399
- ▶ **메뉴** : 노마진 런치세트(20인 한정, 초밥6pcs + 우동) 8천 원, 모듬초밥(10Pcs) 1만 원, 친구세트(특선 초밥 24Pcs + 새우튀김 2 + 미니우동 2 + 마끼 2) 2만 8천 원, 3인세트(초밥 30Pcs + 미니우동 3 + 고르곤졸라 피자) 3만 9천 원 등



일출 오향족발 <죽발집이야? 중국집이야?>

매일 뻥~한 회식이 지겨울 때 쯤! 색다르지만 아늑한 일출에서 '족발+중국요리+맥주'의 삼합을 느껴보자. 간단만 보면 족발집? 메뉴를 보면 중국집? 물음표를 주는 메뉴들! 하지만 한 입 먹으면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신! 일출의 주 메뉴 오향족발은 냉 족발로 흔히 아는 냉채족발이 아닌 오향 장육 소스와 알싸한 고추 그리고 아삭한 오이가 어우러져 계속 '손이 가요 손이가~'는 맛! 느끼함은 제로 칼칼하고 시원한 맛의 새로운 족발을 맛 볼수 있다. 그 외 탕수육, 간소새우, 겨자잡채 등 다른 메뉴들도 전부 맛있는 건 안 비밀~!? 점심 메뉴로 인기 만점인 불 맛과 톡 쏘는 고추가 어우러진 짜장면(밥)과 굴물이 끝내주는~ 짬뽕(밥)도 꼭 맛 볼 것! 또 하나 족발 또는 요리류를 시킬 경우 시원

한 계란탕은 덤이자 무한리필이라는 사실? 삼겹살에 소주! 갈매기살에 소주! 의 회식이 지겹다면? 오늘은 진부한 회식 메뉴의 일탈! 일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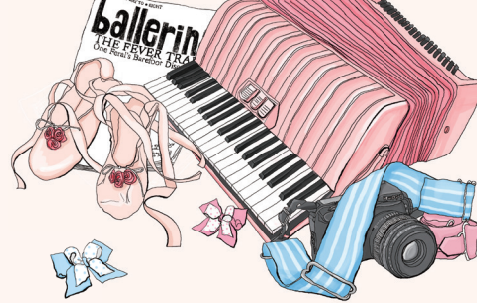
- ▶ **영업시간** : 11:00 ~ 14:00 / 17:00 ~ 23:00 (브레이크 타임:14:00~17:00)
-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4-8
- ▶ **간단 위치** : DMC 9번출구로 나와 첫 번째 골목 직진 후 편의점 기준 오른쪽 골목 도입부
- ▶ **문의** : 02-6487-1688
- ▶ **메뉴** : 일출짜장(밥) 6천 원, 일출짬뽕(밥) 7천 원, 탕수육 1만 3천 원(小), 오향족발 2만 8천 원(中), 겨자잡채(양장피) 2만 8천 원, 간소새우(中) 2만 8천 원, 계란탕 6천 원 등



저팔계 <진정한 숨은 맛집!>

아무리 검색해도 후기 하나 없고 캐릭터 저팔계만 계속해서 등장? 아주 숨어도 꼭꼭 숨은 진정한 숨은 맛집의 냄새가 나지 않는가? 무려 10년의 세월이 깃든 식당 저팔계! 이로부터 심상치 않은 이곳은 바로 한식 전문점 덮밥, 찌개, 탕, 구이, 볶음 등 다양한 한식이 메뉴판에 딱!!! 그중 아들이들한 낙지와 적당히 매콤달콤한 양념의 낙지 볶음과 잘 구워진 생선구이를 추천 2인분 이상이면 된장찌개는 그냥 따라오니 시킬 필요 없다는 점~~ 하지만 공기밥이 별도인 메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 또 하나 다양한 밑반찬과 직접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다는 점~~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에 맛과 신선한 재료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이곳이 바로 진정한 숨은 맛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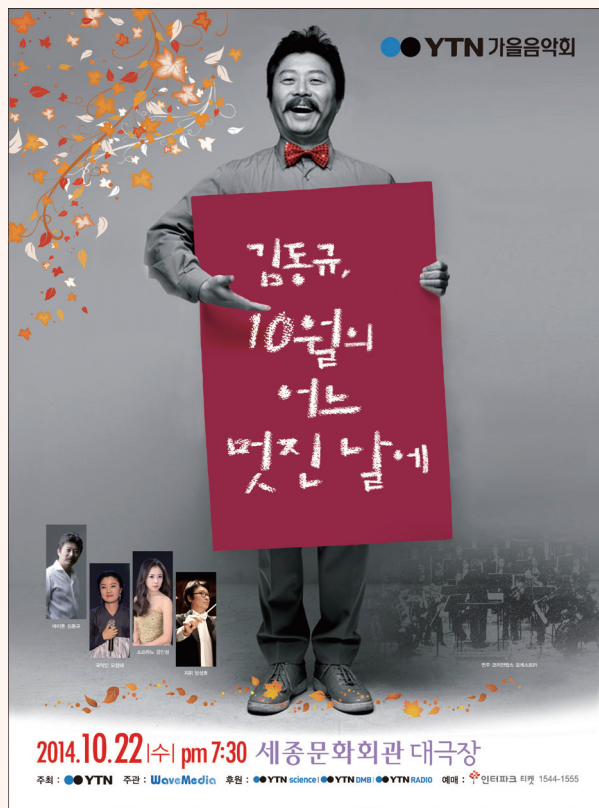
- ▶ **영업시간** : 10:00 ~ 22:00 (일요일 휴무)
- ▶ **위치** : 서울 마포구 상암동 2-269
- ▶ **간단 위치** : 상암파출소 골목에서 직진 상암 감리교회 근처
- ▶ **문의** : 02-309-2004
- ▶ **메뉴** : 낙지 볶음(2인분) 1만 3천 원, 제육 볶음(2인분) 1만 1천원, 생선 구이 7천 원, 비빔밥+된장찌개 6천 원, 김치찌개 5천 원 부대찌개(2인분) 1만 2천 원 등



Culture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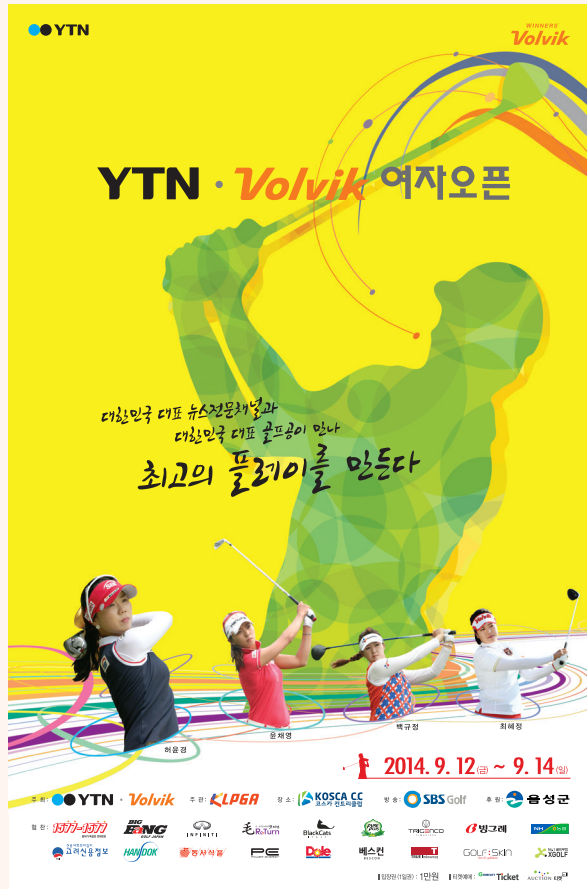
클래식과 국악의 만남, 2014 YTN 가을음악회

- 공연명**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일시** 2014년 10월 22일(수) 19:30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YTN
- 출연진** 출연 _ 바리톤 김동규, 국악인 오정해, 소프라노 강민성
지휘 _ 정인혁 / 연주 _ 코리아나 팝스 오케스트라



NOTICE BOARD

휴직 전선비 영상편집부, 남궁세은 제작기술2부 7.6, 이하린 엔지니어 8.11 / **입사 김희선**, 노종범, 유창림, 이재호 콘텐츠제작팀 7.14, 김수정 영상아카데미팀 7.24, 배민하 편성제작팀 8.18 / **복직 이선아** 정치부 7.26 / **퇴사 이계성** 기술국 7.31, 김현아 편성제작팀 8.19



대한민국 대표 뉴스전문채널과 골프공의 만남

- 대회명** YTN·볼빅 여자오픈
- 대회상금** 5억 원
- 대회일정** 프로암 2014년 9월 11일(목)
본대회 2014년 9월 12일(금) ~ 14일(일), 3라운드
- 대회장소** 코스카 CC
- 참가인원** 132명
스폰서 초청선수 총 8명(프로 5명, 아마추어 3명)
- 주최** YTN, 볼빅
- 주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방송** SBS골프
- 대행사** IB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